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8/9)

1.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굶주린 꽃제비 아이들에게 먹을 주고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 그들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충만하소서



< 북한교회 성도들의 소식 한가지를 나눕니다.>

작년에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북한에 사는 자매에게 비용을 보냈습니다. 자매는 받은 돈 중에서 구별하여 먹을 것을 사서 주변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 신세 진 빚을 갚을 길은 이것 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주면 의심하고 밀고해서 보위부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살고 있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강가로 죽이나 밥을 담아서 나갑니다. 꽃제비들이 대개 강가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날은 길거리에 자판을 벌여 놓고 국수를 삶아서 꽃제비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일반 사람에게는 반값에 팔면서요. 그러면서 자매는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라고 몰래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받침 위에 두니 이로써 그 빛이 집안의 모든 것을 밝히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밝게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 착한 생활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이 북한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굶주린 꽃제비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나누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곡간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북한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하옵소서.

2. 반간첩법이 선교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습니다. 일꾼들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소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정보기관 일꾼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전했다. 북한 보위원이 중국인이나 화교, 조선족들과 접촉하거나 중국 내 건물, 시설물을 촬영하는 등의 정보수집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중국 국민이나 중국 내 시설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반간첩법이 선교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아서며, 일꾼들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너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수같이 고난을 당하고 사슬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다”

디모데후서 2장 8~10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반간첩법 시행으로 북한 보위부의 활동마저 차질을 빚는 현 상황이 선교에 직접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오가는 발걸음과 진행되는 사역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 북한 선전선동부, 대남 심리전 강화



북한이 지난 3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에 대외 인터넷 선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남 '심리전'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은 지난달 말 김영철을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재기용하면서 대남 공작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면전이 발발하면 인터넷 심리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등 전쟁 지휘부가 도주했다느니, 아군이 전방에서 전멸했다느니 등 온갖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국민 혼란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선전선동부의 계약이 무너지고, 북한이 정직으로 진흥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자기에게 덧이 된다 남을 험담하는 말은 별식 같아서 배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죽고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달렸으니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6~8 절, 21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말에 대해 경고하신 하나님, 거짓을 사실처럼 둔갑시켜 교묘한 말로 선전하는 북한 선전선동부의 악한 계락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멸망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4. 오늘도 북한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 년에 이어 2023 년에도 북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어둡고 소망 없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한 줄기 빛이 되어 구석구석 죽어가는 생명들을 찾아내어 위로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역할을 복녃의 성도들로 감당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워낙 악해져서 구제하고 돕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2023 년 상반기 사역 보고에서 나눠진 본회 탈북민 사역자의 감사이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북한의 모든 영혼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멈춤없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인즉”

민수기 14 장 28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북한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이 살아 있다. 내가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모퉁이돌선교회가 시작될 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방 이후 78 년 동안 온갖 핍박에도, 북한에서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 백성과 함께하시며 위로하시고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녃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 북한산 가발·속눈썹, 수감자 강제 노동으로 생산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가발, 속눈썹, 구슬 공예품, 손뜨개 모자, 옷, 식탁보 같은 임가공품들이 북한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의 산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 월, 북한이 중국에 가발과 속눈썹을 수출한 규모는 2394 만 달러(약 302 억원)에 달했다. 이것의 20%를 수감자들이 생산한 것으로 가정할 때 한 달에 최소 478 만 8000 달러(약 60 억)를 수감자의 강제노동으로 벌어들인 셈이다. 수감자들은 하루 12 시간 이상 일하고, 야간 작업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감자 노동력 착취 문제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수용소 내 믿는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이 사람들은 정직한 길을 버리고 흑암의 길로 행하며 악을 행하기 기뻐하고 비뚤어진 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니 그들의 길은 굽어 있고 그들의 행위는 바른길에서 벗어난다... 그런즉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행하고 의인들의 길을 지키라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온전한 자는 거기에 남아 있으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교한 자는 거기에서 뿌리 뽑히리라” 잠언 2 장 13~15 절, 20~22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극심한 영양실조와 폭행, 고문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수감자들이 외화벌이를 위한 강제 노동에도 동원되는 참담한 현실을 올려드립니다. 공권력 행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북한 당국을 주께서 판단하여 주사 말씀대로 보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용소 안에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의인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